



보건의 날 기념행사 9일 광양 포스코 광양백운아트홀에서 열린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서 김영록 지사가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석유화학, 조기대선 속 생존 안간힘

고용위기 대응 협의체 발족,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6월 조기 대선...상반기 중 산업 재편·입법 지원 난망

시장수요 감소와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진 전남 경제의 버팀목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기 위해 행정과 기업 노동계 전문가 그룹이 산업과 고용, 투 트랙으로 안간힘을 쏟고 있다.

벼랑 끝 위기지만 탄핵 정국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정부 구원 등판이 더뎠다는 등 위기 탈출에 발목이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9월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경제의 중심축 중 하나인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의 경우 시장수요 감소에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최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대기업의 신규 투자와 유지보수 사업은 급격히

줄고, 일부 기업은 공장가동을 중단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이 줄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만 명 수준이던 플랜트 건설 노동자수는 올해 2000여 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소비 감소와 지역상권 위축으로 까지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도는 올 상반기를 위기 탈출 골든 타임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도의회와 고용노동청, 여수시와 산업계, 노동계, 지원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협의체를 전남 구성한 뒤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달 중 정부에 고용

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고용위기 지정 신청 후 현지실사 때 기관별 역할, 대응 요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플랜트 근로자수 등 객관적 자료 등도 논의했고 고용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전남에서는 조선업 불황이 극에 달하던 지난 2018년, 영암과 목포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준철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용위기지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대정부 건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광일 도의회 부의장과 주중섭 의원은 "중소플랜트 노동자들의 고용이 지속되도록 정부 지원 사업에 노동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구

축도 급선무다. 도는 지난달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CCUS 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정부 협조도 요청한 상태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산단 적자가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에 10% 오르다 보니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위기 선제대응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도 포함됐으면 한다"고 산자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보고서도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과 고용,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으나 석 달 이상 이어진 탄핵 정국에 이어 6월 초 대선으로 당장 시급한 산업 재편 논의나 관련 입법 절차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호 기자

美관세에 코스피 2300 붕괴·환율 1484원

환율 1480원대 금융위기후 최고...美·中 관세전쟁 '쇼크'

미국의 상호 관세 정식 발효와 중국의 맞불 관세에 따른 글로벌 무역 전쟁 불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뉴욕 3대 증시가 파랗게 물들었고,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추락했다.

아시아증시도 발작해 일본 닛케이와 대만 가권은 4% 가까이 떨어졌다. 원·달러는 사흘 연속 올라 금융위기 수준인 1500원에 바짝 다가섰다. ▶관련기사 4면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74% 떨어진 2293.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23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3년 10월 31일 10월 31일 2277.99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외국인인 9거래일 연속 '팔자'로 이날도 1조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코스닥은 전일대비 2.29% 급락한 643.39에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806억원과 219억원을 사들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외국인은 968억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650선 아래로 끌어내렸다.

글로벌 각국 증시도 패닉 장세를 보였다. 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4% 내린 3만7645.59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57%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15% 내렸다.

아시아증시도 파랗게 물들었다. 일본 닛케이225는 3.93% 하락했고, 대만 가권증시는 4.02% 떨어졌다. 홍콩 항셍지수는 3.2% 중국 상해지수는 1.6% 각각 하락했다.

환율은 1500원에 바짝 붙었다. 원·달러는 전일 오후 종가(1473.2원) 대비 10.9원 오른 1484.1원에 마감했다. 증가 기준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전일대비 10.8원 오른 1484.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1487.6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이날 금융시장 패닉은 미·중 무역 전쟁 불만에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짙어진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34%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에 반발해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대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9일)부터 중국에 104% 관세를 천명했다.

/뉴시스

이재명, 오늘 영상 메시지로 출마 선언

내일 모레 비전·캠프 발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이 전 대표의 의지와 각오가 담겼다고 이 전 대표 측은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어 1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비전과 캠프 인선을 발표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비전 발표 장소를 국회 소통관으로 잡은 것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민의를 전당을 존중하고 정당 간 협치의 상징적인 장소라는 의미"라

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일을 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쉽거나 후회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도기 기자

광주 분산에너지 특화모델 추진 2면

민주 대선 레이스 속도 3면

미, 상호 관세 폭탄 4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업,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업,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석면해체제거

건설 폐기물 처리 전문 광성환경

합리적인 가격! 깔끔한 마무리! 빠른 처리속도!



공장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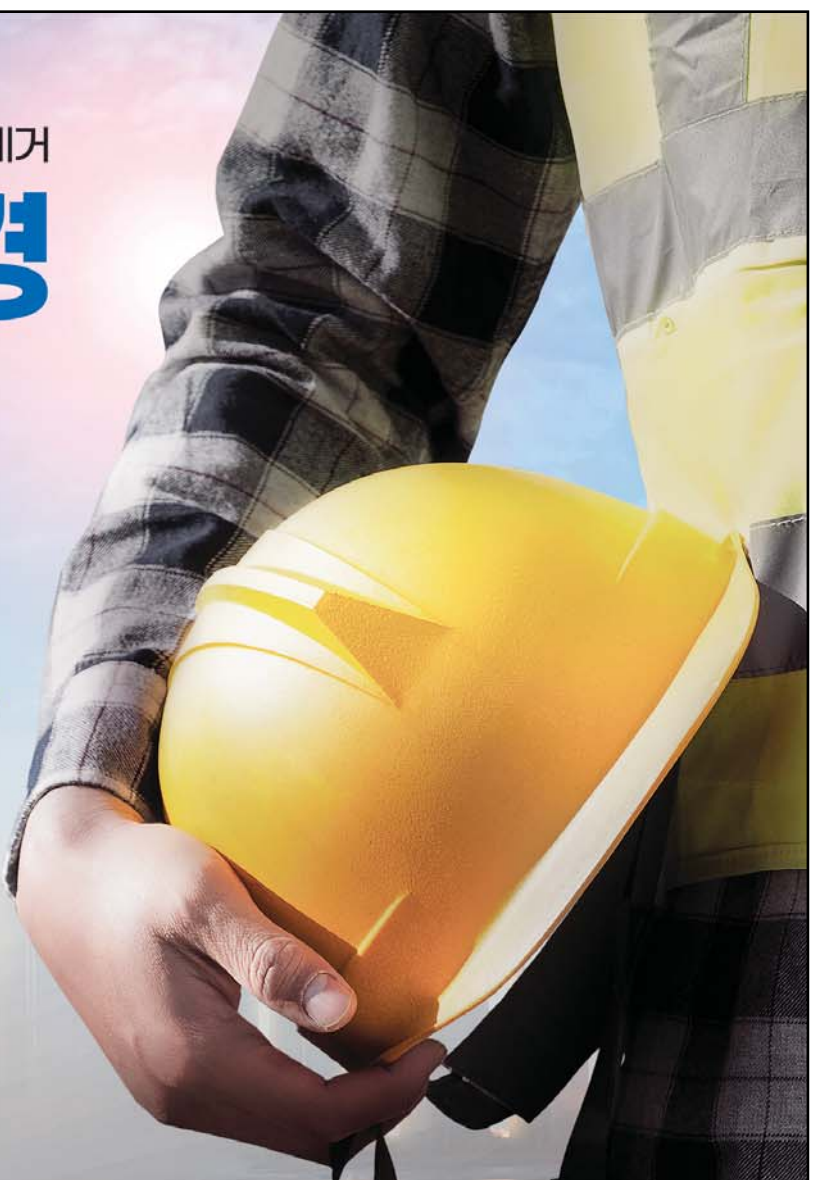


공장 내부

폐기물 처리

폐기물 운반

철거 공사



환경을 생각하는

GS 유한회사 광성환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평리 969-5 문의전화. 061-537-4775